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33 호 [루계 제 26007 호] 주제 107 (2018) 년 5월 13일 (일요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신 소식을 10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해변가를 거니시며 담화를 하시는 사진문련들을 모시고 이번 중국방문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로씨아의 라디오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와 습근평주석사이의 회담이 중국 대본현에서 진행되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도자를 위해 중국국주석은 연회를 마련하였다.

구바의 브랜스 라파나통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 국무성 대본현에서 습근평주석을 또다시 접견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포스트》는 이렇 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중국의 습근평주석과 또다시 상봉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습근평주석과 만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대련시를 방문하신 그이께서는 습근평주석과 상봉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습근평주석은 김정은령도자를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TV방송, 꾸

비신문 《그만비》, 봉골의 문재봉통신, 싱가포르신문 《한합보조》, 인터

네트통신 《오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더리의 인터넷통신 보

이스 오브 밀리언즈, 인더리-시아

통신, 도이월란드신문들이 《프랑크

부르트》, 《에마마이에》, 《한델스블라

트》, 우루파이신문 《라 후엔부드》,

인더리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

즈, 파리스란신문 《파리스란 웃어

버》, 네랄신문 《리파블리카》,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에티오피아의

하나통신, 에질트신문들이 《알 아흐

람》, 《알 파스트》, 《알 미쓰리 알야

움》, 나이제리아의 신문 《데일리 트

리스트》, ATF방송, NTATV방송, 미국

의 CNN방송,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이

《에 우니베르설》, 《울파리스 노비씨

아스》, 베레트TV방송, VTV방송, 베

두산체스피조선천선협회, 에스파냐 비즈코

주체사상연구소주, 민주평고주체

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트홈페

이 전에 걸쳤다.

라오스신문들이 《벳리오》, 《비

엔티안 마이》, 《비엔티안 타임스》,

네랄신문 《쓰러미끄》, 인더리의 신문

《오우선 뉴스 뮤니언》, 인더리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브라질의 인터

네트통신에서 《마르사 배르데》와 남아프

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주, 베

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주, 베

리카 김정일도서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

구소, 나이제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

민족의 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 위

원회 인터넷통신들은 조선로동당

원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부도 물들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의 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련들을 모시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동지의 명도

본사기자

## 희세의 천 출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넷에 재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통일5대방침에 대하여》를 태양절에 즐음하여 로씨야 포모스도서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조선민족의 양양한 전도와 통일의 밝은 미래가 있다.

발행식이 얼마전에 진행되었다.

출판사 책임 주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

의 고전적로작 《인민군대를 강화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4월 18일 인터넷홈페이지 《주체 아프리카》에 올렸다.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회보고

에서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의 전문을 역사적인 4월

남북현상회의 70돐에 즐음하여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가 4월 18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조선로동당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걸출한 령도자

여러 나라 인사들 열렬히 칭송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조선로동당

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뒷걸음치고

나아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보적인 유

적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조선로동당이 필승불패의

혁명적도약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

있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통일도구로 단행본으로

나아가는 경지이다.

그이의로 속하고 세련된 명도

에 의해 위대하고 존엄 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단행본으로

나는 승리의 한길로 향하고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을푸말랑가

주체원회 비서는 이렇게 강조하

는 유종은 대상으로 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동지의 명도

## 인재강국건설을 추동하는 전사회적인 교육지원열풍

전국각지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교

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해 주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교육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루고자

기여하는 혁명적교육을 통해

교과목을 확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위대한 경도, 불멸의 70성상

#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어 승리떨쳐온 빛나는 날

승리의 9월을 향하여 폭풍노도서 전진하는 이 땅에 빛나는 역사의 날이 새겨지고 있다.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장구한 인류역사에서 70년은 순간과도 같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규례없이 거창하고 눈부신 변화들로 위대한 승리민족을 이로새기며 민족번영의 시대를 장엄히 펼쳐온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70년은 실로 비슷한 의미를 역사에 아로새기였다.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수립, 자립적인 경제건설, 그 무엇으로써도 끌릴수 없는 수명, 당, 대중의 일심단결...

하나만 우리 조국은 어떻게 그 모든 위대한 기적들을 그것도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여 오늘처럼 승리의 상상봉에 올라설수 있었는가.

백두의 혁명전통!

우리 혁명의 만년초 석인 이 위대한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험난한 시련의 길을 헤쳐 남들 같았던 상상도 할수 없을 가장 거창한 변화, 가장 영광스런 시대를 놀부시게 펼치며 이 행성의 중심에서 빛을 뿐될수 있었다.

그렇다.

궁금 높은 70년사를 감회깊은 추억속에 물이보며, 보다 화창한 할 범역의 천만리를 눈앞에 그려보며 이 나라 천만군민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이 조선은 무궁로로 승리할것이라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담과 혁명의 역사적뿌리이고 그 맥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른한 밑천입니다.」

인민대중 중의 혁명위업은 장기성을 띠는 역사적위업이다. 혁명은 한세대에 끌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며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발전하고 완성되게 된다.

때문에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혁명의 근본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꽃같이 이어나가는것은 혁명위업의 승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하지만 혁명전통은 저절로 계승되는것이 아니었다.

걸출한 명도자를 모신 혁명은 자기의 전통을 흡수하여 승리와 번영의 역사로 수놓을수 있지만 그렇기 못하면 좌절과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것이 세계정치가 남긴 뼈저린 교훈이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 역사에는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자랑한 승리를 이로새겨온 빛나는 행로이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혁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지며 항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한강까지 하여나가는 그 것을 그려온 그림이 있다.

우리 장군님의 역적불변의 신념이 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틈없이 무장자들」,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로 뻗어나온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앞장에 서시여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탑사행군길은 혁명전통의 빛나는 계승으로 이 땅에 영원한 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그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지난 세기 50년대 중엽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앞장에 서시여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탑사행군길은 혁명전통의 빛나는 계승으로 이 땅에 영원한 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그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행군길, 혁명의 천만리길이 있어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혁명 전통을 향유하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얼마나 세찬 혁명열, 투쟁열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역사로 기적적인 승리의 날로 되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행군길, 혁명의 천만리길이 있어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혁명 전통을 향유하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얼마나 세찬 혁명열, 투쟁열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역사로 기적적인 승리의 날로 되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민인들을 세상에 부릴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로,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5월 어느날 출거운 등산로정을 따라 아령의 하루를 보내던 소년단원들이 꿈만 같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면서 일어난 예레운 듯 생생하다.

많은 사람들이 묘향산을 찾아 등산길에 오르면 시기였다.

바로 그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묘향산등 소년단아령소리를 찾으셨다.

하루빨리 아령소리를 새상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혁사적위업, 혁명의 피줄기를 맡고 있는 종대한 사명을 스스로 말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월성같은 신념과 현명한 평도가 인아온 발전하고 완성되게 된다.

때문에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혁명의 근본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꽃같이 이어나가는것은 혁명위업의 승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하지만 규례없이 거창하고 눈부신 변화들로 위대한 승리민족을 이로새기며 민족번영의 시대를 장엄히 펼쳐온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70년은 실로 비슷한 의미를 역사에 아로새기였다.

하지만 혁명전통은 저절로 계승되는것이 아니었다.

걸출한 명도자를 모신 혁명은 자기의 전통을 흡수하여 승리와 번영의 역사로 수놓을수 있지만 그렇기 못하면 좌절과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것이 세계정치가 남긴 뼈저린 교훈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밖에는 그 어떤 혁명전통도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문제는 꼭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표시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이룩된 혁명전통과 활동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는 혁사의 새시대가 성립히 펼쳐져게 되었다.

# 절세위인이 펼쳐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회 상보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구적인 사변들이 조선반도에 서 일어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 해하면서 열렬히 지지환영하고 있다.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치닫던 북남관계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자주통일의 새 평화가 쏙여지게 된 것은 걸고 하늘이 준 기적도, 역사의 우연도 아니다.

그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에게 걸어 전하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 만민을 격동시킨 애국의 호소—북남관계대전환방침

백두산의 장래한 해들이며 더불어 밟아온 주제 107(2018)년 새해의 첫아침 불신과 적의의 익울장을 깨뜨리며 온 겨레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부르는 절세위인 민족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 위대한 선언이 울려펴졌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윤리신년사에서 내부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체제 압박소동과 광활적인 전쟁도발책 등으로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북남사이의 침에 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회복부터 마련하여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함에 대한 문제, 북파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저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에 대한 문제 등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은 절세위인 민족애와 투철한 통일의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혁명한 방향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다.

특히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대표단과 경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한 익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이라고, 한피줄을 나는 겨레로서 토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과 정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은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절세위인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근제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 등으로 격찬하면서 열렬히 지지 환영해나였다.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편이어 주워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1월 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총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조선을 소집해온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과 전지한 힘과 성실한 학생들을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데 대해서 외교부 외교부 견해와 함께 문제들을 남측과 제제에 형평하게 하여 남조선당국과 함께 문제들을 남측과 제제에 형평하게 하여 남조선당국과 정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은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절세위인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근제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 등으로 격찬하면서 열렬히 지지 환영해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임에 따라 1월 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총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조선을 소집해온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과 전지한 힘과 성실한 학생들을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데 대해서 외교부 외교부 견해와 함께 문제들을 남측과 제제에 형평하게 하여 남조선당국과 정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은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절세위인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근제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 등으로 격찬하면서 열렬히 지지 환영해나였다.

이러한 가운데 1월 9일에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북남双方는 북측대표단은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북남双方는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를 민족의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제23차 겨울철 월평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책을 세우고자 대동강에 대해 관리하고자 했던 온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펼쳤다.

</





